

할렐루야!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빕니다.

금요일 밤입니다. 금요일은 <성령집회>, <명설교>, 그리고 잠언을 통한 <기도회>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올해 5월로 섭리사에 성령집회가 시작된 지 <5주년>이 되었습니다.

원래 오늘은 <성령집회 5주년>을 맞이해서 전 세계 생방송으로 성령집회를 하려 했었지요?

그러나 올해부터 방향을 바꾸어 <성령집회 기념일>과 <섭리역사 기념일>을 같이 기리고자 합니다.

<부활절>도 ‘절기’로 삼아 ‘매년 4월 둘째 주 주일’을 <섭리역사 부활절>로 정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영광 주간>도 ‘절기’로 정하여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를 <하나님의 날>로 정했습니다.

<성찬식>도 ‘절기’로 정하여 ‘매년 11월 둘째 주 주일’을 <성찬식>을 거행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이밖에도 <성탄절>이나 <생명의 날>도 ‘절기’로 정해서 해마다 그 날이 되면, 그에 해당되는 것을 기념하며 그 날을 기리고 있습니다.

1978년 6월 1일은 선생이 성자께 받은 <시대 말씀>과 <도표>를 가지고, 서울에 와서 섭리역사를 시작한 날입니다.

선생이 서울로 오기 위해 월명동 성황당 길을 넘어 왔던 때는 ‘5월 말’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섭리역사를 시작한 날>도 ‘절기’로 삼아 기념하기로 했습니다.

섭리사에서 <성령집회>는 2009년 5월 1일에 시작했습니다. 이 날도 해마다 기념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섭리역사를 시작한 6월 1일>과 <성령의 역사를 시작한 5월 1일>을 같이 기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두 기념일을 통합하여 ‘매년 5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나 주일’을 <성령절>로 삼아 기념하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려고 했던 <5주년 성령집회>를 5월 마지막 주 금요일로 옮겼습니다.

앞서 지난 4월 25일 금요일 성령집회 때 전했던 말씀이 남은 2014년의 전반적인 방향입니다. **생각**에 대한 말씀과 **개인이 잘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전반적인 방향이 나갔고, 개인이 잘하게 하려면 먼저 각 교회에서 개인을 지도하는 ‘교역자’들이 유능해야 하니, 먼저 <교역자 연수>를 계획했습니다.

<교역자 연수> 기간은 **5월 15일 목요일 오전부터 5월 17일 토요일 아침**까지입니다. 먼저 한국부터 시작합니다.

교역자들만 교육을 받으면, 각 교회에서 뛰는 지도자들과 맞지 않기 때문에 <교역자 연수 말씀>은 ‘교회의 지도자들’도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목회를 할 사람들’과, ‘부서 지도자들’, ‘기타 각 기관의 지도자들’도 참여하여 말씀을 듣도록 해 주었습니다.

5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저녁까지 <세 번>으로 나누어 각각 해당되는 교육을 풍부히 해 줄 것입니다.

현장 좌석을 배치 받은 사람들은 <월명동 현장>에서, 좌석이 부족하여 못오는 사람들은 <각 지역의 지정된 교회>에서 말씀을 듣도록 했습니다.

먼저는 <교역자 연수 말씀>에 전체가 집중하여 이번 기회에 교역자들을 비롯하여 모든 지도자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역자 연수>가 끝난 후에 <섭리역사 36주년 기념>과 <성령집회 5주년 기념>을 같이 하겠습니다. 행사가 아니라 <기념일>이니, 역시 프로그램은

‘성자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만 있으면 족합니다.

자신의 휴거와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선생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선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생의 몸이 되어 불철주야 몸이 부서지도록 뛰고 있는 조은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은 <축복식>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축복 대상자들은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말아요.

<결혼>은 <휴거> 밑에 있다고 했지요? 이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 <휴거>를 최우선으로 신경 쓰기 바랍니다.

걱정되는 것이 있으면, 혼자 끙끙대지 말고 주변의 선배들에게 조언도 구하고, 또 성자와 성령님께도 자꾸 구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전체의 흐름을 한 번 짚어 주었습니다.

<전환>

오늘은 <성자의 잠언>을 전해 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해’에 대한 말씀입니다.

잠언 하나하나 모든 말씀은 ‘자기 삶’과 연결되어 있고, ‘구원’과 연결되어 있고, ‘휴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육, 혼, 영’ 모두에게 연관된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삶’과 연관 지어 깨닫기 바랍니다. 깨닫고 행함으로 ‘육, 혼, 영’ 모두 한 차원씩 더 높이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시작>

1. 말 안 하면 오해한다. 오해한 사람은 자기가 오해한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하여 그들도 오해하게 만든다.

2. 오해할 소지가 있으면 말해라.

3. <새벽 계시>

꿈에 내 혼체가 아는 사람 집에 갔다. 부잣집이었다.
그 집에서 크고 작은 멸치를 섞어서 말리고 있었다.
나도 같이 멸치를 손질해 주며 도와주었다.

그러다 마른 멸치 중에 가끔 큰 것이 보였다.

옆에 있는 아주머니보고 큰 멸치는 내게 달라고 하니, 아주머니는 큰 멸치가 보이면 내게 주었다. 나는 그것을 받아서 먹었다.

그런데 주인집 아들이 손질한 멸치들을 봉지에 담은 것을 내게 보이면서 나보고 말하기를 “내가 큰 멸치를 달라고 했다고? 모아서 시장에 팔려고 해?” 했다.

나는 “내가 그까짓 멸치를 시장에 팔려고 하겠냐? 내가 마른 멸치를 좋아해서 큰 것이 보이면 하나씩 먹으려고, 아줌마에게 큰 멸치가 보이면 나 좀 달라고 한 거야.” 했다.

주인집 아들은 그 말을 듣고, “그러면 그렇지. 나는 친구가 큰 멸치들을 골라서 모아서 팔려고 하는 줄 알았지. 나도 이해가 안 돼서 확인하려는 거야.”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내가 말 안 했으면, 나를 인격의 수준이 낮은 사람으로 봤겠네.” 했다.

→ 말 안 하면, 자기가 한 행동만 보고 오해한다. 그러니 항상 눈치를 채고 상대가 오해할 소지가 있으면 말해야 된다.

4. 식구들끼리도 수시로 교통의 말을 해야 된다.

5. 애인 사이도 수시로 말하며 교통해야 오해되어 없이지 않고 풀린다.

6. 형제끼리도 말 안 하면 오해한다.

7. <오해>는 왜 할까? 모르니까 오해한다.

8. 사람은 말 안 하면, 자기 생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혼자 오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해한 대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한다.

9. 오해한 사람도 말 안 하면, 왜 오해하고 있는지 상대가 모른다.

10. 파악도 안 하고 확인도 안 하고 오해하는 자가 ‘실책’ 이고 ‘실수’ 다.

11. 오해의 소지를 남길 것 같으면, 말을 하는 것이 지혜다.

12. 그러나 상대가 오해하지 못하게 자기 비밀을 다 말할 수도 없다.

13. 누가 말을 안 하니까, 그 사람을 수상한 사람으로 봤다. 그러나 알고 보니 ‘말더듬이’ 였다. 자기 모순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말을 안 한 것이다. 그러나 상대가 그것을 보고 오해한 것이다.

14. (* 화면을 보겠습니다.)

어느 농촌 마을의 한 집에 아주머니는 마당에서 곡식을 널고 있었고, 한 남자가 그 집 마당에 들어와서 서 있었다. 그 남자는 10~20분 동안이나 아주머니와 이야기했다.

아주머니의 남편이 앞산에서 마당을 보니, 둘이 가깝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 자기 부인과 그 남자의 사이를 오해했다.

그 후에 남편이 집에 있는데, 또 한 남자가 와서 마당에 서 있었다. 예전에 앞산에서 본 그 남자였다. 그 남자는 20~30분 동안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다가 찾아온 목적을 이야기했다.

알고 보니 농기구와 삽을 빌리러 온 것이었는데, 하도 자주 빌리러 오니까 미안해서 바로 말을 못 하고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다 농기구와 삽을 빌려 달라고 한 것이다.

그제야 남편은 ‘아! 그래서 전에도 내 부인이 마당에 있을 때 그렇게 오래 있다 갔구나!’ 하고 오해를 풀었다.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그 사람 연장 빌리러 오면, 30분은 틈을 들
이다 말해.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찾아오면, 필요한 것 있으면 알아서 갖
다 쓰라고 해.” 했다.

15. 친해도 말 안 하면 오해한다.

16. 부부끼리도 말 안 하고 행동만 하면, 오해한다.

17. 적과 싸울 때는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다.

무조건 자기를 해할 자로만 보게 된다.

18. <오해>가 불씨가 되어 ‘싸움, 이혼, 이별’ 하는 일이 너무 많고, ‘손
해’ 보는 일이 너무 많다.

19. 말 안 하면, 진정 도와줘도 의심한다.

20. 섭리사 안에서도 서로 ‘오해의 소지’가 많으니, 서로 속 이야기를 해
라.

21. <오해>는 빨리 풀어야 ‘해’가 안 된다.

<전환>

22. 오해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주관으로 넘겨짚고 판단하고 대한다.

23. 사람을 오해하던 버릇이 들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자기 주관
으로 오해하고, ‘자기를 구원하러 온 자’도 자기 주관으로 오해한다.

24. ‘성경’도 오해하고 풀고 산다. 자기만 손해다.

25. <오해의 소지>가 ‘자기’에게 있는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구원
자’에게 있는가 보고, 오해를 풀어 바로 인식하고 생각하고 대해라.

26. 어느 날 한 제자가 진지하게 자기 사연을 이야기한다고 하며, 선생에게
편지를 보내왔다. 선생은 전혀 그 방향으로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데, 선

생이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며 오해했다.

그래서 답장을 주기를 “나는 지금 네가 생각하는 골짜기에 없고, 다른 골짜기에 있다.” 했다.

27. 상대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오해하여 고생하며 행하는 자가 너무 많다.

28. ‘성자도, 선생님도 나는 아예 생각하지 않아.’ 하며 오해한다.

오해할 시간에 자기를 생각해 달라고 성자와 선생에게 계속 자기 사연을 고하고, 지난날의 잘못도 회개로 고해라.

29. <인간의 좁은 생각> 때문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분체’도 오해된 것이 너무 많다.

부지런히 시대 말씀을 전해 주면서 말해 줘라.
그러면 오해된 것이 풀린다.

30. <육체 휴거>도 오해다. <천국에 관한 것들>도 오해된 것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시대 말씀을 전해야 된다.

31. 말씀을 듣고도 오해하면, 또 전하여 가르쳐 줘라.

32. 올바른 사람인데도 오해한다. 그러나 자기가 그를 오해한다고 해서 올바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 되겠느냐.

33. 오해한 사람은 결국 ‘오해의 계곡, 오해의 함정’으로 가지만, 오해를 받은 사람은 자기 길을 굳건히 간다.

34. 모르고 오해하는 사람만 ‘오해의 골짜기’에서 허탈하고 험한 꼴을 겪는다.

35. 너를 구원하는 자를 오해하지 말아라. 그러면 구원이 안 된다.

36. 어떤 남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어떤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저 여자 틀렸다.”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여자를 경계하고 서서히 멀

리했다. 그 후 알고 보니, 여자와 대화한 남자는 그 여자의 아버지였다. 남자는 ‘무지의 오해’로 사랑하는 여자를 뺏겼다.

37. <오해>는 ‘무지’이며, ‘경솔’이다.

38. <오해>는 ‘자기 차원의 생각’이지, ‘상대 차원의 생각’은 아니다. 고로 꼭 물어보기다!

39. 서로 체면과 권위를 지키려고, 먼저 말을 안 한다. <오해받은 사람>은 “나는 그렇지 않은데, 무슨 말을 해? 그렇게 잘못 생각한 사람이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라지!” 하고, <오해한 사람>은 “너는 내가 생각한 대로 그런 사람이야.” 하며 계속 오해한다.

40. 선생이 베트남전에 참전했을 때, 4~5개월 동안 한국의 한 소녀와 편지를 주고받았다.

어느 날 시내에 갔는데, 야자수 그늘에서 노는 아기를 한 아가씨가 안고 있는 모습을 찍은 엽서가 있기에 사서 그 소녀에게 부쳐 주었다.

그런데 그 후부터 그 소녀에게서 편지가 안 오기 시작했다. 내가 깨닫고 보니, 그 엽서에 있는 아기와 여자를 내 애인으로 오해한 것이었다. 고로 나를 버린 것이었다.

그 오해를 받고 너무 억울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억울함’도 더욱 깨닫고 배웠다.

20년이 지난 후에 그 소녀를 찾아보았다. 남편은 죽고, 아들과 딸과 자기, 셋이 같이 살고 있었다.

만나서 그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은 시장에서 파는 엽서였다고 설명해 주었다.

다 풀어 주니 자기가 너무 몰랐다고 했다. 그때 자기 오빠도 죽었기에 나와 편지하면서 위로가 됐는데, 엽서에 아기와 여자가 있는 것을 보고 결혼한 사람이라고 오해했다고 했다.

생활이 어려워니 월명동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했더니, 그냥 자기가

있는 곳에서 살겠다고 했다. 그래서 제자들보고 그 여자의 자녀들만 도와 주라고 했다.

41. 오해하면 손해 간다. 고로 파악하고 확인하여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구원자를 오해하면, <구원>도 못 받고 <휴거>도 안 되고 영원한 손해가 간다.

42. 성자를 오해하지 말아라. 늦게 일어났다고 “성자는 떠났어.” 하지 말아라. 성자는 신이라서 천 리 떨어져 있어도 그 영체가 옆에 계신다. 고로 늦었어도 불러라. 찾아라. 신을 모르니까 오해하는 것이다.

43. 신(神)은 <본체>가 옆에 있으나 없으나 ‘거리’가 상관없다. 한방에 같이 앉아 이야기하는 자가 거리가 멀다고 해서 안 보이나. 성자는 늘 한방에 있는 것과 같다.

44. 신(神)은 <천국>에 계셔도 ‘우리 옆’에 있는 것과 똑같다.

45. 무지한 인생이니, ‘사람 입장’에서만 신을 생각한다.

46. 성자가 내 옆에 계실 때 물은 것의 응답이 내 마음의 귀에 들리는 시간과 성자가 천국에 계실 때 물은 것의 응답이 내 마음의 귀에 들리는 시간은 같았다.

47. 신(神)에 대해 아는 만큼만 역사하시고, 아는 만큼만 혜택을 누린다.

48. 신(神)을 ‘인간 입장’으로 생각하는 무지한 인생들과는 함께 일하지 못한다. 신은 신에 대해서 아는 자의 육신을 쓰고 일하신다.

<전환>

49. 나는 나를 오해했다. <관념>은 ‘실천’을 오해하고, <겉 사람>은 ‘속 사람’을 오해했다.

50. 10대 때도, 20대 때도 나는 별다른 특별한 인생이 못 될 것이라고 나를 오해했다.

51. 30세가 넘었을 때도 내가 나를 보고 말하기를 “잘하면, 큰 교회 하나 만들겠다.” 하고 오해했다. 사실 ‘오해 반, 실력 반’ 이었다.
52. 나는 나를 보고 말하길 “사람들이 네 학력 알면 너를 무시하고, 또 무식하다고 생각들 하며 네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도 더 안 믿는다.” 하며 오해했다. 그러나 “예수님도 초등학교 정도 나오고, 중학교 나왔나? 대학교 나왔나?” 하며, 내 지식 없으니 오직 하나님 지식과 주님 말씀만 그대로 배운 대로 전하니 더 오리지널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한글 외에는 몰라. 오직 하나님과 주님 말씀, 주님께 배운 것만 전해.” 했다.
53. 나는 내게 “너는 말도 더듬고 사람 앞에 부끄러워하고 하니 하나님의 <시대 말씀>을 많이 알아도 제대로 못 전해 준다.” 하며 바보라고 생각하고 오해했다. 그러나 점점 행하여 말의 달인이 됐다. 없어 못 전할 정도다.
54. 나는 나에게 “너는 키가 작아서 눈에 띄지 못한다.” 하며 오해했다. 그러나 “그러면 구두 굽 높이지. 높은 데 서 있지. 내 인생, <진리 사랑 원자폭탄> 되지. 원자폭탄이 커서 위력이 있냐?” 하고 오해를 무시하고 행했다. 결국 멀리 있어도 마음에, 생각에 띄는 자가 됐다.
55. 나는 나를 형제들 중에서 제일 부족하다고 오해했다. “너는 글 못 써. 글은 큰형이 잘 써. 말은 광석 형이 잘하고, 범석이가 잘해. 너는 아예 마음도 먹지 마.” 하며 오해하고, “그림은 용석이가 잘 그려. 너는 안 돼. 그리고 너는 힘도 없어. 힘은 역시 규석이야. 너는 약해. 그리고 너는 피아노도 못 쳐. 피아노는 영자야. 너는 심부름도 못해. 계란 사 오다 깨트리고, 심부름 가다 목적을 잃고 돌아오고.” 나는 나를 겪으면서 오해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장남 인석이 형, 둘째 광석이 형 모두 신학교 몇 개씩 나오고 박사인데, 너는 그쪽 면도 안 돼.” 하고 나를 오해했다. 또 “네 집은 작은 동네, 큰 동네 할 것 없이 온 동네에서 제일 가난해서 평생 일어나기 힘들다.” 라고 나에게 말하며 오해했다. 그런데 이런 것 모두 나를 전능자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귀히 쓰는 육신으로 만들어 벗어나면서 오해가 풀렸다.
56. 오해하면, 오히려 해가 된다.
57. 자기를 무시하고 오해하면, 할 것도 안 하게 된다.

<전환>

58. 70년도에 70일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을 때 큰형 집을 찾아갔다. 아침 식사 시간을 맞춰서 기어서 갔다. 그런데 도착하니, 밥을 거의 다 먹어 가고 있었다.

내가 70일 동안 굶어서 거의 쓰러질 지경에 있는데도, 큰형은 밥이 남아서 내어 가면서도 내게 밥 먹으라는 소리를 안 했다.

그때 나는 큰형을 오해했다. ‘어떻게 밥이 남아서 부엌에 내 가는데도 밥 먹으라는 소리를 안 할 수 있지? 너무하다.’ 했다. 그리고 다시 내가 거하는 곳으로 돌아왔다.

그 후 20년이 지났을 때다. 그동안 나는 형에게 해 줄 것을 다 해 주었다. 월명동 1차 개발이 거의 끝나고 정리가 다 될 즈음에 큰형이 월명동에 왔기에, 그때 70일을 굶고 찾아간 것을 이야기했다.

“밥이 남아서 부엌에 내 가는데도 왜 내게 밥 먹으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했다.

큰형은 “너 그때 금식했지? 금식하는데 밥 먹으라고 하면,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헛소리 아니냐. 네가 금식을 자주 하는 것을 아는데, 내가 알면서도 헛소리를 하겠냐. 금식 끝났으면, 밥 좀 달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냐.” 했다.

“나는 70일을 굶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형 집에 간 거예요.” 했다. 큰형은 화를 내면서 “아니, 네가 그렇게 굶었는데 형이 밥을 안 주겠냐? 네가 말을 안 한 것이 잘못이지, 내가 잘못이냐?” 했다.

“보면 몰라요? 70일이나 굶었는데 얼굴과 몸을 보면 몰라요? 핑계 대는 말 아니에요? 그때를 잘 생각해 봐요.” 했다. 큰형은 20년이 넘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그때는 형이 나를 보기만 하면 고향에 내려가라고 하고, 예수님은 고향에 내려가지 말고 예수님이 지시하면 내려가라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 형이 안 믿으니까, 힘들지만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던 거지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해 놓고 군중이 따르면 인정하니까, 내가

할 것을 해 놓고 형에게 말합니다.” 했다.

그때는 이미 섭리사가 커서 군중들이 따를 때였다.

큰형은 “그래도 나는 모르니까 네가 말했어야지.” 했다.

“형에게 말하면 애인이 하는 말같이 잘 들어주는 게 아니고, 형 생각에 맞는 것만 듣고 이해하니, 내가 그동안 말 안 했지요. 형이 장남으로서 알아서 해 줘야지, 내가 어떻게 해 달라고 해요?” 했다.

이때 성자는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말 안 하면 모른다. 고로 서로 말해라.” 하셨다.

59. ‘알아서 해 주겠지...’ 하지 말고, 말해라.

60.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다 아신다. 다 아신다고 해서, 알아서 다 해주지 않으신다. 인간이 말할 것은 말해야 해 주시고, 인간이 할 것은 인간이 해야 된다.

61. 재판할 때도 판사와 검사가 모르니까 오해해서 3년, 5년, 8년씩 형을 더 줄 때도 있다.

62. <인간의 재판>은 공의롭지 못하다. 왜? 인간은 한 나라의 주권자라도 인간이기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직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재판>만 공의롭다.

63. 만일 인간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일체 되어 조사하고 재판한다면, 공의롭게 재판할 수 있다.

64. 어떤 사람은 범인이 아닌데도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10년, 20년씩 감옥에서 살다가 죽었다. 후에 후손들이 모두 밝혀서 진실을 알고 보니, 그는 범인이 아니었다. 고로 정부에서 수습역을 보상해 주었다.

65. 어떤 사람은 농기구를 빌리러 갔다가 주인이 없어서 나왔는데, 그 후에 그 집에 있던 돈이 없어졌다.

동네 사람이 아무개 누가 오후에 그 집에서 나왔다고 하니, 그 사람을 범

인으로 몰아 신고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

그 후에 그 집의 진짜 도둑이 다른 집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잡혔는데, 조사해 보니 그 도둑이 옛날의 그 집에서도 도둑질을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을 개판으로 하니, 무고한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다.

66.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자들이 제일 크고 큰 것을 오해하면서 믿고 있다.

그들은 말한다. “하나님은 본래부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그로 인해 인생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낸 것이다. 고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된 예정’이다.” 한다.

자기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의 고통을 못 느낀 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리 믿고 전하고 있다. 그러니 제대로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67.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과 평화의 세계’를 이루며 ‘서로 돕고 사는 이상적인 삶’을 살다가 ‘육신’이 죽으면 ‘영’이 육신이 행한 대로 <천국>에 거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다.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불신하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불신했다. 그리고 핍박하고, 악평하고, 이단시하다가 결국 죽이기까지 한 것이다.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던 자들이 몰라서 예수님을 불신하고, 사이비로 몰고, 이단시하고, 악평하고, 핍박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게 한 것이 아니다.

결국 안타깝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메시아로서 모든 자들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신 것이다. 그로 인해 메시아로서 죄인들을 살리시고 <구원 길>을 열어 놓으셨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은 자들의 영은 사망으로 가고 말았다.

고로 성경에 “너희 죄 때문에 주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 주셨으니 고난의 주를 믿고, 너도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따라야 구원받는다.” 한 것이다.

68. ‘제대로 알고 믿는 자의 구원’ 과 ‘모르고 믿는 자의 구원’ 은 하늘과 땅 차이다.

69. 지금도 <하나님>을 안 믿고 <시대 보낸 자>를 안 믿으면 시대 보낸 자가 <십자가 고통 길>을 가면서, 그가 사명자로서 대신 ‘시대의 죄값’ 을 받고 희생해 주며 온 인류에 <구원 길>을 열어 놓는다.

시대 사람들이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게 하시고, 안 믿으면 그 행위대로 심판받게 하신다. 역사는 동시성이다.

70.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믿고 따라간 자들은 메시아가 십자가를 안 지게 해 준 자들이다.

71. 메시아를 불신함으로 구원자가 십자가를 지게 하고, 후에 깨닫고 알고 따라간 자들도 많다. 예수님 때는 사도 바울 등 여러 사람이 있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그 시대가 예수님을 불신하니 ‘시대의 죄와 불신’ 으로 인해 예수님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하며 갈 수 없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믿으니 시대의 판국이 기울어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의 길>로 가셨다. 본래 뜻은 아닌 길로 가면서, 메시아로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함으로 <구원 길>을 열어 놓으셨다.

그래도 예수님을 안 믿은 자들의 영은 결국 <사망>으로 가고 말았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72. 자기를 향한 성자의 행하심을 오해하면, <자기 오해>로 ‘자기 마음 문’ 을 잠그게 되어, 성자가 역사하실 것도 못 하게 된다.

고로 기도해라! 기도해야 성자의 마음을 깨닫고 ‘마음 문’ 을 열고 성자를 환영한다. 자기가 성자의 행하심을 원하고 구하고 환영하니, 성자는 즉시 하고자 하는 것을 행하며 역사하신다.